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

- 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

오현석**

<차 례>

1. 들어가며
2. 대중 공포로 인한 한센인 격리
  1) 일반 대중들의 공포 의식
  2) 지배 권력의 대중 공포의식 활용, 사회적 효율성
3. 자기낙인과 회피에 따른 거주의 불안, 유랑의식
  1) 고향을 떠난 거주 불안 : 가족과의 이별, 공간의 불안정성
  2) 환자 자신의 유랑 선택
4. 나가며

【국문초록】

한센병은 현재 1년에 신규 환자가 20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 의료기술에 의해 전염 위험이 거의 통제된 사멸해가는 전염병이다. 하지만 비(非)한센인들의 한센병, 한센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과거부터 한센인들은 사회로부터 항상 배제, 억압의 대상이었고 격리되어야 할 타자였다. 그들은 사회

* 이 논문은 한국문학회 2015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거주의 자유조차 박탈당했다. 한센인들은 병으로 인해 공동체 밖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가족과 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떠돌이로 유랑하거나 보호소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보호소 역시 그들이 심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 단지 신체만 남겨둔 곳이었기에 그들은 평생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유(浮游)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센인들의 이러한 정착 불안에 대한 의식은 우선 공포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이 느끼는 공포의 반대편에는 그 공포를 조장하는 또 다른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대중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한센병에 대한 공포와 지배 권력이 그 공포심을 활용하여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센인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는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한센인들은 거주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육아의 자유마저도 빼앗겼다. 국가는 법이라는 장치를 무기로 이러한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시켰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한센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스스로를 사회적 타자로 낙인찍어버렸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평생 본원적 공간이 충족되지 않는 거주 불안을 겪게 된다. 한센인들은 병으로 인해 가족, 고향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끊임없이 그 대체물을 갈구했다. 이와 같은 한센인들의 거주 불안과 유랑 의식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일반대중의 외면, 사회구조적 문제, 환자의 자기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한센병 문학은 이런 문제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특히 환자 자신이 쓴 문학작품들은 그들이 느끼는 외면, 망각을 벗어나기 위해 외친 피맺힌 절규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타자로서 한센인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목소

리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한센병 문학이 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의식 역시 그들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한센병, 한센병 문학, 나병, 나환자, 나문학, 심숭, 김정한, 인간단지, 윤지영, 한하운, 사회적 타자, 공포

1. 들어가며

인구 10만 명 당 0.04명, 2014년 신규 환자 18명(비활동성 12명, 활동성 6명), 현재 활동성 환자 199명, 마무리 치료 6,357명, 한센서비스 대상자 4,970명 등 한센병 사업대상자는 2014년 현재 전국에 11,904명이다.[1] 2014년에 A감염병 신규 환자는 1,191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수는 9,615명이다.[2] 2013년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B감염병은 36,089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71.4명, 사망률은 10만 명 당 4.4명에 이른다.[3] 2014년도 한국 총 인구수는 5,130만 정도이다.[4] 이들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상의

---

1) 질병관리본부, 『2014한센사업지침』,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014, p. 51.

2) 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 현황」,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015, p. 6, p. 9. 본문에서 전염병의 명칭을 A전염병, B전염병으로 지칭하는 것은 참고문헌에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나마 한센병처럼 이들 전염병에 대한 또 다른 오해나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는 필자의 취지에서 병명을 A, B로 표기했다. 이들 전염병 환자들은 이미 수많은 차별과 억압 속에 속박되어 타자화의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타자화는 거부되어야 한다.

3) 질병관리본부, 『2013년 질병관리백서』, 질병관리본부, 2014, p. 97.

4) 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17, 행정자치부 정보통계담당관실, 2015, p. 5.

정보는 간명하다. 한센병과 A감염병은 총 환자 수는 비슷하지만 환자 발생률은 후자가 훨씬 높다. B감염병과 한센병을 비교하면 전체 환자 숫자나 발병률, 사망률에서 한센병이 B감염병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산술적 수치만 가지고 보면 한센병은 이제 전염병으로서의 생명을 거의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서 한센인[5]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에 한센병이 완전히 소멸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강력한 한센병 퇴치 정책 하에 환자와 병원균을 잘 관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의 병력자들과 감염가능성이 있는 예비자들을 완벽하게 통제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의 통계를 볼 때 누구나 수치상으로는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전염병은 B라는 사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른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보다도 한센병이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으로 인식된 결과 이러한 객관적, 이성적 판단을 위한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한센병은 '천형(天刑)'이라고 불릴 만큼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게 된 환자와 그 가족은 최대한 발병을 숨기려했고, 외적으로 발병의 흔적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병흔(病痕)이 드러나서 외부로 발병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는 사회

5) 이 논문에서 한센병이 있는 환자를 지칭할 때는 현재 의학, 사회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한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뒤에서 논의될 문학작품, 기록자료 등에 나오는 한센인과 관련된 용어는 원문에 나온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한센인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단순히 한센병 환자를 객관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각각의 용어는 당시 사회에서 한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센인에 대한 당대 다양한 인식의 결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투영되어 있다.

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가족들 역시 지역공동체에서 더 이상 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한센인을 격리하고 가족 성원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환자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한센인 스스로 투명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을 유지하고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동안 한센병은 문둥병, 천형, 나병 등으로 불리며 벗어날 수 없는 스티그마에 휩싸여 있었다. 한센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그들을 얽매고 있는 낙인 때문에 산술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는 앞의 통계를 해석하는 것조차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환자가 100명이든, 1명이든 간에 한센병 환자는 공포와 두려움의 표상일 뿐이다.

이렇게 한센병이 사멸해가는 시점에서 한해 신규 환자가 불과 20명이 채 되지도 않는 한센병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반대로 이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치명적 전파력을 가진 B전염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근·현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에게서 한센인을 대하는 일반인의 태도와 인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비이성적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 문제적 지점을 발견하여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한센인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인권침해나 강제 연행, 억압, 강제노동 등 과거에 자행되었던 반인권적 문제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회의 주변인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일반인들은 한센병이 거의 치유되었다는 소식에서 우리 사회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센인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주위에 그런 환자가 없다는 것에 안심한다. 즉, 실제 현실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눈과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안도하고 문제가 없다고 간과해 버리게 된다. 이처럼 한센인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한센인들이 처한 실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침묵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결국 현대 사회는 여전히 한센인들을 사회적, 정신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한센인에 대한 연구는 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6] 한센인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의학 중심인 것은 한센병이라는 질병 극복을 위한 당연한 것이었으며 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학 연구자들이 한센인의 인권 피해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역사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한센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한센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상황을 토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한센인 실태조사를 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 한센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쉽게 드러내 놓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 은유적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 세상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한센병 문학[7]은 이렇듯 자기서사의

---

6) 의학 분야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치료, 한센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연구와 간호학적 영역에서의 연구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학적인 분야에서는 주로 통계자료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센인의 거주와 사회적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다. 박종철, 「사회적 소수자로서 한센병력인의 주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 박사 논문, 2010; 정근식,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 일제하 나(癩)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51, 1997, pp. 211-265; 정근식, 「한국에서의 근대적 癩 구료의 형성」,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사회과학』 1, 1997, pp. 1-30; 최수연, 「한센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 논문, 2007; 의학 계열의 논문들은 한센인이나 의료진들의 구술연구, 생활연구 등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한센인의 삶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김성리, 「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22-2, 2013, pp. 389-419; 김지혜,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기」, 조선대 석사 논문, 2004.

7) 한센병 문학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한센병 환자, 의료진, 전업 작가, 일

표출이자 서러움의 표현이면서 자기의 은닉과정이기도 하다. 즉, 표현과 숨김의 두 가지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부르짖는 고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읽음으로써 그들이 표출하고 있는 사실과 허구 사이의 고백적 글쓰기[8]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한센인들이 수기, 일기, 투병기, 시작(詩作) 활동의 방식으로 절규하고 폭로한 목소리들이 시인 한하운 외에는 그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한센인 문학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9]

한센인에 대한 망각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한센인을 격리 수용한 결과이다. 다수의 일반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자 또는 타자화 할 대상이 그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내적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그 사회 가장자리나 외부로 몰아내고

반인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저자를 포함한다. 한센인 문학은 이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한센병 환자와 음성 환자들의 작품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한센병 문학의 관점에서 한센병 환자의 자전적 글쓰기와 전업 작가의 한센인에 대한 작품을 다룰 것이다.

8) 한순미, 「'서러움'의 정치적 무의식-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自傳)」,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94, 2012, p. 301.

9) 한센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시인 한하운을 연구한 논문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근식이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후 한순미 등 연구자들이 한센인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자들의 관심은 소수자 담론의 형성과 소수자의 억압과 고통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근식,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 - 심숭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23, 2004, pp. 325-353; 한순미, 「상처는 왜 쓰는가-한국 나환자 심숭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34, 2012, pp. 471-498; 崔明杓, 「[童話]_社會的_他者와의 對話 方式」, 아동문학평론사, 『아동문학평론』 30, 2005, pp.135-151; 김학균,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한센병의 은유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pp. 405-430.

공간을 재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자리를 없애버렸다. 결국 "공간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에 의해, 사회적으로는 부르조아 계급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지배"[10]된 것이다. 즉, 한센인들의 거주와 유랑의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적 목적이 혼합되어 사회가 그들의 권리이자 자유를 억압한 데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센인 문제는 한센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로부터 망각된 채 더 이상 그들이 사회로 진입하거나 복귀하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거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무관심과 외면은 한센인의 불안정한 삶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안착할 수 있는 거주지나 이동의 자유는 거의 없다.[11] 일제 강점기 소록도 수용소(병원)에서 출발한 한센인 감금과 배제의 역사는 정착농원과 요양소라는 얼굴만 바꾼 정부정책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센인들 스스로도 '부랑'과 '유랑', '격리' 의식이 내면화되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거주의 자유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센인 작가가 쓴 자전적 문학작품과 한센인을 다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 불안 의식의 은유적 자기 표출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문학작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한센인들의 정착의식, 사회적 충돌로 인한 괴리감, 인간 본연의 내적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격리의 문제와 한센인들의 유랑의식의

---

10) Lefebvre, Henri,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1974, p.62.

11) 김남구, 「한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0, p. 84. 감남구는 이 논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문제가 과거 법률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한센인 강제격리 조치'가 입법화되면서 한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법률상으로 보장되지 못하다가 이 법이 폐지되면서 한센인의 사회복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된 한센인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정착마을이다.

근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망각되어왔던 소수자, 한센인의 삶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대중들의 공포로 인한 한센인 격리

한센병은 '죄(罪)'였다. 과거에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천벌(天罰)'받아 '천형(天刑)'에 처해진 저주받은 죄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대중들은 한센인을 보건의 위협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왔다.[12] 대표적인 한센인 작가인 시인인 한하운은 「罰」에서 어처구니없지만 "이 하늘 밖에 내세워 진" 병을 가진 자기 몸을 보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
그러나 나는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罰이올시다. (「罰」 한하운)

"하늘 밖", 즉, 세상 밖에서의 외침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안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하운이 타의에 의해 "내세워 진" 그 공간은 타자에 의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더 이상 '안'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타자가 되었음을

12) 김미정,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 1930-40년대 소록도 갱생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2012, pp. 434-442.

깨닫게 된다. 본인의 의도나 부정에 의해 "문둥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병원균이 있거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원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한센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공포심에서 출발했다. 공포는 한센인에 대한 사회의 거부감을 심화, 지속시켰고 한센병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용인했다.

한센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착의 꿈은 꿔왔지만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부유(浮游)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은 지금까지 소록도로 대표되는 요양소(병원 및 수용시설) 또는 함께 모여 살도록 정해진 정착농원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 조차도 쉽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서는 항상 강제 노동과 수많은 착취가 행해졌다.

또 1950~70년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착농원을 만들 때에도 일반인들의 반대 때문에 터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즉, 정착의 문제는 한센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떠돌이의 삶으로 흔들어놓았다. 가족과의 이별, 소속된 사회로 부터의 격리, 원치 않는 방랑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사회적 관계가 정착 부재의 문제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인간에게 살아갈 땅이 없는 것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속박 당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이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정착과 거주의 문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했다. 2011년 국내 한센인의 거주 형태 통계자료[13]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재가의 형태가 약 57%, 정착농원이 약 34%, 소록도 병원, 민간인 보호시설 등 입원보호가 약 9% 정도이다. 즉, 재가와 집단거주가 6:4 정도의 비율이다. 거주 형태를 통해서 볼 때 과거 집단 수용에 초점을 두던 정부의 정책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센인의 거주 형태가 근본적인

13) 한센인총연합회, http://www.hansenkorea.org/

변화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재가의 형태도 많은 경우 정착농원 부근에 머무는 환자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집단 수용의 모습만 바뀌었지 그 폐쇄성과 억압의 굴레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가 한센인들을 사회로 포용하여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오히려 이제는 한센인들이 오랜 격리와 주변인으로 침묵과 묵시 속에서 일반인들로부터 잊혀져버렸다. 그들은 주변인으로도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 밖 타자가 되어 망각된 존재로 사회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어진 한센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심의 부재는 결국, 지속적으로 환기된 공포가 한센인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1) 일반 대중들의 공포 의식

한센병에 대한 다수의 두려움과 공포는 한센인들로부터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결혼의 자유, 출산의 자유조차 빼앗았다. 다수의 일반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공리주의를 가장한 반인권적 목적을 앞세워 국가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열성인자로 인식되어 사회가 그들의 권리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당시 일반인들이 한센인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과 두려움은 언론보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는 당대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센인 공포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 근래 부산 시내에는 문둥병자의 횡행으로 시민보건 상 심히 위협이 된다 하야 일반은 매우 우려하고 있는 터인데 지난 이십사일 미명을

> 귀하야 부산 경찰서에서는 시내 각처에 산재한 뢰병환자(癩病患者) 소굴을 습격하고 이백 이십 사명의 걸인군을 모흐게 되얏다. 그 중 태반이 뢰환자이엿고 삼십 여명의 근장한 자도 잇섯슴으로 이들에게는 보수천과 수정천의 오물(汚物)소제하게 하고 나머지 전부는 두 방면으로 나누어 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내 엇으나 멀지 안허 또다시 시내를 횡행하게 되리라하는 데 이를 소탕 방침에 대하야 경찰무위생과에서는 연구하는 중이라고 한다.[14]

도심지에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문제적 상황이다. 한센인들은 '시민 보건 상 위협'이 되므로 도심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에 경찰 권력은 그 소굴을 '습격'하여 그들을 흩어버렸다. 경찰 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인 조치는 공권력의 폭력이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건장한' 신체를 가진 이들인데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건장한 이들이 보균자인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오물소제에 동원할 정도로 통제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안심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당국도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이 결국 부적응으로, 마을공동체로부터의 추방에 의해서, 가족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 의해서 등 여러 이유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은폐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도시로 돌아올 것을 예상한다. 즉, 한센인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모여 살게 되지만 이마저도 도시공동체로부터 배척받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되는 거주 부재(不在)의 과정이 반복된다.

> 문둥병 환자 만키로 전 조선에 유명한 전남 려수에서는 지난 일월 말의 통계 숫자가 칠백칠칠 명이든 것이 겨우 일개월반을 지난 삼월 중에 이르러는 일천일백사십칠 명의 엄청난 증가이다. 이 무서운 통계 중에는 은익환자(隱匿患者)가 만하야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촉하지 안

14) 「나환자와 걸인 퇴치. 부산서에서」, 『조선일보』, 1932. 05. 27. 석간 2면.

흐면 안될 긔관과 음식점, 려관 등에까지 분포되어 잇다. 이와 가티 격증되는 현상으로 본다면 려수 지대는 장차 문둥병 촌으로 화하고 말 것이라 하야 일반은 전*함을 마지않는다고한다.[15]

이 기사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센인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용어를 기사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이 '은닉환자'일 수 있고 '일상생활' 영역까지 한센병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했다. 또한 은닉환자 즉, 신고하지 않은 환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에 대한 공포는 한센인들을 집단 수용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여수 일대가 '문둥병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한센인에 대한 거부감을 일반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는 한센인을 사회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들은 공동체에서 찍어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경상남도 사천군 서도면 비토리 섬에서 발생한 나병환자 살상사건 현지를 시찰하고 30일 하오 5시 30분 귀임한 홍(洪) 경남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대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0여 명의 영복원 나병환들과 현지주민들의 생존경쟁에 기인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번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환자들은 행정당국에 기대할 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섬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옮길 것을 결의하고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을 줄 알면서도 지난 17일 약 300명의 환자들이 제 1차로 배를 타고 비토리 섬에 상륙하려 했으나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와 삽 등으로 달려들었던 관계로 부득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22일 재차 50여 명의 환자들이 상륙을 기도-섬 일부를 점령한 다음 천막을 치고 임야 개간에 착수한 것이 살생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향토* 강제점령당한 현지주민 700여 명은 나병환자들을 철거시

15) 「遂日 增加하는 麗水의 癩患者-恐怖에 싸인 郡內人心」, 『조선일보』, 1933. 05. 27. 조간 4면.

> 키기로 결의하고 집안적으로 죽창과 삽* 등으로 나병환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데 이 비토리 섬의 주민들은 1년에 8개월간은 석화라는 해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병환자들이 이 섬에 살면서 이를 이 석화를 딴다고 하면 상인들이 이 해산물을 사지 않을 것으로 판* 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들 생계에 큰 위협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나병환자의 이주를 적극 반대했다는 것이며 비토리 섬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살상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섬 주변에는 경찰에서 기관총까지 내걸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한다.[16]

이 사건은 일명 '비토리 사건'[17]으로 불리는 한센인 정착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환자 숫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존해야할 땅과 식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육지는 환자 숫자의 증가에 따라 확장을 할 경우 다른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으며 당국의 통제도 쉽지 않다. 하지만 섬이라는 공간은 제한된 환경에서 당국의 통제도 쉬우며 주민들의 반발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비토리 사건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한센인의 더 큰 희생을 낳았다.

한센인의 증가에 따른 정착이 공고화될 경우 섬 주변 주민들은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발을 한다. 이 기사에서 경남경찰국장은 충돌의 원인을 '생존경쟁'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당시 일반인들이 한센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센인이 자기 지역에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들이 수확하는 해산물들이 팔리지 않아 생계에 문제가 생

---

16) 「생존경쟁이 빚은 참극, 사천 나환자와의 충돌경위」, 『조선일보』, 1957. 08. 31. 조간 2면. '*'는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17) '비토리 사건'은 2009년부터 실시한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센인의 섬 상륙을 결사적으로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30여명에 가까운 한센인들을 무자비하게 희생되었다.

비토리 섬은 한센인들에게 일반 주민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정착을 위한 공간적 의미임에 반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처절한 생계유지를 위한 삶이 결정되는 공간이었다. 즉, 섬은 두 집단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익충돌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생존이 걸려있는 공간에 대한 투쟁으로 인한 충돌은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였으며 결과 역시 소수자이자 타자인 한센인들이 사회의 편견을 넘어설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센인에 대한 사회와 일반인들의 대응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최대한 한센인과 병원균에 감염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는 물론 일반 주민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적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일반인들은 한센인을 집단 수용하고 타자화 시키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감염원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게 된다. 결국 한센인의 인권을 담보로 한 생명정치는 한센인이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지는 고민하지 않은 채 일반대중과 한센인을 국가의 통치 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대중들은 한센병에 노출되었을 때 비토리 섬의 한센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한센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의 공포가 은연 중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배 권력의 대중 공포의식 활용, 사회적 효율성

나환자들의 통제 정책은 일반인들의 공포심과 거부감을 자극하여 사회에 필요한 존재와 불필요한 존재를 경계 지으며 이들 존재

를 가차 없이 도태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안전사회 지향의 모습과 함께 사회로부터 이탈자들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력에 명분을 제공했다. 일반인들은 나병환자들이 제거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은 나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 때부터 정부는 부랑 걸식하는 나병환자들을 질서유지 차원에서 통제대상으로 여기고 종교권력은 이들을 수용, 사회에 순응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 관리정책은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다. 일제는 나환자의 격리수용에 관련된 사업이나 조직기구를 조선총독부 경무국 관장사항으로 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기구를 만들고 갱생원이라는 강제적 수용소를 통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18]

사회 권력과 정부에 의한 통제 중심의 나병담론 생산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일반인들의 한센인에 대한 공포의식은 통치 효율성의 수단으로서 사회 질서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했다. 즉, 일제 때부터 이미 한센인과 관련된 정책들은 생명권력을 소유한 국가가 한센인들의 생명주권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면서 신체, 생명이 정치화되어 버렸다.[19] 즉,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권력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한센인과 같은 타자화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일종의 국유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일반 대중들이 한센인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비토리 섬 사건과 같은 비극은 윤정모의 「섬」과 김정한의 「인간단지」 등 한센인을 다룬 문학작품 안에서도 똑같이 그려졌다.

---

18) 최정기, 「일제하 조선의 나(癩)환자 통제에 대한 일연구 - 나환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 논문, 1994, p. 5, p. 53.

19) 미셸 푸코 지음, 김상운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pp. 291-292.

"찾았다! 문둥이들이 여기 숨어 있다! 사정 없이 부숴라!"
정착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소록도에서 함께 나온 동지들과 각지로 떠돌아다니던 장타령꾼들이 한데 어울려 천막을 치고 임야를 개간하면서 터전을 넓혀왔다. 인근 부락의 살기 띤 농성과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텨 왔다. 천막을 부수면 다시 짓고, 불태우면 새것으로 대치하면서 쑥밭에서 일어나기를 수십 차례… 그래서 정착민들은 영록원을 지켜낸 것이다.[20]

인간에게는 누구나 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한센인들도 마찬가지로 고향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살아갈 공간이 필요했다. 병을 가진 몸으로 혼자 떠돌며 산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위험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처지의 환자들끼리라도 함께 머물 곳이 필요했다. 현실은 그조차도 용납되지 못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는 한센인 강제수용 정책을 변경하여 정착촌 형성에 힘을 쏟지만 전국 각지에 정착촌이 형성에 끊임없이 잡음이 생겼다. 기존 주민들의 반발과 이를 무마하려는 정부사이에 낀 한센인들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착을 위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섬』에서 한센인들은 수차례 정착촌이 폐허가 되는 위협 하에서도 정착촌을 지켜냈다. 그들에게 영록원은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정착지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문둥이'가 아닌 '정착민'으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결국 올 것은 왔다. 2백여 명의 장정들이 백주에 괭이며 삽, 몽둥이들을 들고 몰이꾼처럼 몰려왔다. 어느 얼굴을 보나 인간 백정이다.! 50명 남짓한 〈인간단지〉의 식구들은 우선 손에 쥔 것 없이 그들의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 떼를 지어 앉아 있던 〈인간단지〉의 식구들은 우꾼하고 일어서고, 천막 안에서는 두 팔에 낫을 동

20) 윤정모, 『섬』, 한마당, 1983, p. 15.

> 여맨 십여 명의 젊은이들이 튀어나왔다. 한참 난투극이 벌어졌다. 천막은 헐리고 〈인간단지〉의 식구들은 여기저기 쓰러졌다. 부락민도 더러 낫에 상했다. 이건 그저 싸움이 아니라 바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전쟁이다.[21]

한센인들의 정착기는 생존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다. 물러서거나 지게 되면 그것으로서 육체적, 사회적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인간백정'이 되어 그들의 공간에서 한센인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일반인들은 유랑하는 한센인보다 한센인들이 집단정착촌을 만들어 가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일부를 감염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그 공간은 영구적으로 감염의 위협이 되는 공간이며 감염 확대의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구적 문제의 원인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평생 공포를 안고 살아야하는 두려움을 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한센인의 정착을 반대하고 생존의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한센인들 역시 정착촌에서조차 정착을 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소록도 수용소로 돌아갈 수도 없는 부유(浮游)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끊임없이 경험해 온 한센인들에게 정착의 부재는 결국 생존의 부재이다.

위의 두 소설에 제시된 한센인 정착촌 습격사전의 대립 양상은 일반인과 한센인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한센인 정착에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정치, 권력은 아무런 중재나 보호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지배 권력의 역할은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지배 권력은 이해당사자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권력과

---

21) 조갑상 · 황국명 · 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4, 작가마을, 2008, pp. 66-68.

소수자의 대립이 아닌 소수자와 일반인의 대립으로 갈등을 유발시킨다. 두 소설에서는 이런 갈등을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지배 권력이 소수자를 관리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패러다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소설 속 갈등의 장면에서 더욱 여실히 한센인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삶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공포의식과 지배 권력의 암묵적 통제가 한센인을 사회로부터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확실히 라병에 걸렸구나" - 이 생각이 내 머리를 무겁게 합니다. 눈앞을 캄캄하게 해 줍니다.
>
> 간호부는 알코올병을 들어 의사의 손에 알콜물을 부어줍니다. 의사는 알콜에 두 손과 팔둑까지를 흡신 씻고나서 하얀 까제로 닦아버립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병균침입을 방어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날다려 진찰이 끝났으니 이제는 진찰실에서 나가달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22]

「혈루록」에서 주인공은 의사로부터 나병 확진을 받으며 절망한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주인공의 절망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의 무언의 행동이다. 환자가 받았을 충격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사는 자신의 손으로 확인된 '병원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환자를 앞에 두고 접촉이 있었던 신체부위를 닦아내는 행동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진찰실을 나가달라는 의사를 드러낸다. 한센병 환자로 확진된 순간 주인공의 절망감과 충격은 타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한센균 보균자로서 격리와 배제의 대상이 될 뿐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본인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근대적 시설인 대학병원에서 병균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대적 기술에 의한 신체검사가 수용하는 당대의 과학

22) 무명생, 「혈루록」, 『신동아』 제3권 11호, 신동아사, 1933, p. 169.

적 합리성 때문에 외면 받는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23]

> 준엽은 담배연기를 길게 뿜어대며 대답했다. "하도 뼈가 사그랑거려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 병질검사를 했는데……하참, 주제소에서 먼저 결과를 알고 추방하러 왔더라니까." "주재소에서요? 주재소에서 왜요?" "그 병이면 병원에서 관할서로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다네." "언제부터요?" "오래 전부터래. 그것도 몰랐는데 주재소 순가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넌 문둥이니까 빨리 소록도로 가라' 그러는 거야."[24]

> "사정을 모를 땐 다 그렇게 말하는 법이라네. 아닌 말로 소록도가 좋다면 천막 식구들은 왜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영록이 형은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해가면서 놀이패를 만들 생각을 했겠는가." "그럼 요즘도 주재소에서 소록도로 가라고 강요합니까?" "요즘은 더 심해. 자진신고라는 미명 아래 보이는 족족 강제 이송을 시키고 있거든. 옛날엔 그래도 수용인원이나 채우려고 신문에 광고를 때렸지만 요즘은 강제 모집인데다 그 이유가 또 노역을 소모시키기 위해서라는군." 그즈음 신문에는 나병은 반드시 낫는다는 광고와 함께 소록도를 지상낙원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본인은 그곳을 기피하거나 수용되었다가도 탈출하는 사람이 많았다. "노역으로 소모시킨다면 소록도에 그렇게 할 일이 많대요?" "조선팔도의 나환자들은 몽땅 쓸어버릴 계획이라네.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한대. 오물은 하루빨리 청소해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절해고도에다 말끔히 쓸어 모아 매일 중노동으로 때려잡자는 계산인데……"[25]

윤정모의 「섬」에서는 일제시기 한센인 강제격리 정책이 실시되면서 일제가 한센인들 검거와 격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할서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은 인간의 기본권

---

23) 정근식, 앞의 글, 2004, p. 333.
24) 윤정모, 앞의 책, p. 32.
25) 윤정모, 앞의 책, pp. 33-34.

인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다. 법과 신고는 근대 이후 지배층의 편리와 효율적 국가 운영에 필수적 요소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도 법적 정당성을 내밀어 단번에 한센인을 자율성을 지닌 인간에서 법의 구속 아래 놓이는 지배받는 존재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리고 '오물'로 은유되는 한센인의 처지는 지배 권력이 한센인들을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은 결국 한센인들을 정권 유지와 사회 안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집단 강제 수용된 많은 한센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집단 수용소에서 생을 이어갔으며 일부는 강제노동과 폭력에 희생당하기도 했다.

'절해고도(絶海孤島)'로 한정된 한센인 수용소는 한센인들에게 요양소와 정착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강제로 '정착되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수없이 반복된 한센인 괴담과 분리담론은 결국 지배 권력이 희망한 사회구조적 안정과 일반인 집단, 한센인 집단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담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기낙인과 회피에 따른 거주의 불안, 유랑의식

한센인들은 병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한다. 그들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관계는 병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다. 사회 제도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낙인찍히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한센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이런 경험은 한센인들이 자기낙인을 통해 세계로부터 단절을 행하는 자의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된

다. 처음에는 외부에 의한 단절로 시작되지만 단절이 단절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낙인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피와 불안의식은 깊이 각인된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스스로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을 단절하게 된다.[26]

거주 불안 의식은 이런 자의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타인에 의해 낙인을 경험한 이들은 이러한 낙인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자기 낙인을 통해 자기 존재의 비하와 부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신이 속해 있던 가족, 지역 사회의 내부적 낙인과 상처를 벗어나 이런 관계들과 단절하고 유랑을 선택하는 것은 한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다. 그러므로 유랑의식은 한센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나서는 길이라기보다는 내부적 낙인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외부적 낙인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한센인들은 국가,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천대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자신을 알고 있는 사회공동체를 벗어남으로써 심리적으로 마나 낙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1) 고향을 떠난 거주 불안 : 가족과의 이별, 공간의 불안정성

고향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또 고향은 '가족'이라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가족과의 이별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센인들은 강제 격리에 의해서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26) 이준상, 「한센병력인의 낙인감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15-3, 2011, pp. 122-123.

병으로 인해 타의에 의해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부유(浮游) 그 자체이다. 시간이 흘러가도 고향으로 대표되는 안정감은 그 어디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고향에 대해 끊임없이 갈구하는 내적 욕망이 나타난다. 한센인은 그들 스스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만 문득문득 고향에 대한 생각은 나타난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안정된 생활, 정착의 공간이 필요하다.

> 휘범은 눈을 감았다. 강변에서 지낸 나날은 꼭 20일간이었다. 이제 막 놀이패의 한 구성원으로 익숙해질 무렵에 다시 또 낯선 곳으로 이탈되어 가고 있다. 아니,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그 섬으로…… 죽음만이 유행병처럼 떠돌고 있다는 늪과 같은 그 섬으로…… 서러움 같은 것이 치밀면서 고향집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지우고 강변사람들을 생각했다.[27]

휘범은 병을 확인하고 집을 나와 자신과 처지가 같은 떠돌이들과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다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서 소록도로 강제 이송을 당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생각은 고향으로 향해 있다.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표출은 모든 인간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한센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해 유랑을 시작한다. 그들이 정착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요양소나 정착마을은 진정한 정착이 될 수 없다.

휘범은 강변 꽃놀이패와 자유롭게 지내던 생활을 끝내고 늪과 같은 섬(소록도)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 순간 고향을 떠올렸다. 자신이 나고 자란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휘범에게는 사치였다. 고향은 이미 기억하면 안 될 근원이었다. 가족은

---

27) 윤정모, 앞의 책, 1983, p. 57.

여전히 고향에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이 받게 될 고통은 그의 생각이 고향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한센인들은 이처럼 영원이 정착을 갈구할 공간이 없다. 이런 장소 상실은 한센인들을 끊임없이 유랑하게 만들었고 불안을 내재화시켰다.

琴湖江 푸른물결
거기서 할아버지가 죽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나는 거기서 강물을 마시고 병 들었다
나는 거기서 낮잠을 자고 병을 키웠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버림을 받고 쫓겨 나왔다

나는 오늘
그러한 곳으로 찾아 왔다

옛날의
그러한 곳에는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가만히 그 앞에 서서
푸른 琴湖江 물결을 바라 본다

나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歸鄕報告」, 윤지영)[28]

28) 윤지영, 『祝福』, 인간사, 1959, pp. 28-31.

윤지영은 한센인이다. 이 시는 시인이 투병생활을 하면서 "가슴팍을 헤치고 터져 나오는 정감을 엮어서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의 항거"[29]로 내놓은 『축복』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이다. 금호강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그곳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내가 이어온 가족의 터전, 고향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나'는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고향에서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 한참을 유랑하다가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병을 얻고 키운 곳이지만 그곳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고향이다.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이 그의 귀향에 '또' 다시 모여들었다. 과거 화자를 몰아냈던 그때처럼 또다시 그를 몰아낼 것 마냥 몰려들었지만 그는 원망 대신 고향의 푸른 물결만 바라보면서 침묵했다. 내가 아는 것은 '푸른 금호강의 물결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에 육체적, 심리적으로 떠돌던 자신을 마침내 고향에 안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윤지영의 「귀향보고」는 이처럼 한센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족과의 이별과 분리 때문에 가슴 속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정착에 대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고향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즉, 충족되지 않는 한센인의 거주불안 의식은 다시 근원적 결합지점을 찾아야만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근원적 정착의식과 그리움은 가지고 있다. 한센인도 예외가 아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회복은 그간 불안을 모두 일시에 소멸시킬만한 힘을 가진 것이다. 이런 근원적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센인의 집단거주 정책과 요양소 정책은 한센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었음을 드러낸다.

---

29) 윤지영, 위의 책, p. 85.

> "가끔 이런 애가 생깁니다. 어머니한테루 가고 싶어하는 거죠." 성애는 경배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그 무서운 병의 소굴인 수용소로 갈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 "너 정말 어머니가 보구 싶어서 그런 짓을 했니?" (……) "어머니와 같이 살면 병에 걸린다는 걸 모르니?" 그때 영기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나어린 소년이다. 어머니와 같이 살기만 한다면 그 뒤에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무서울 것이 없으리라는 것쯤 이해할 수 있었다.[30]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정착의 불안정성은 한센인 뿐만 아니라 한센인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미감아(未感兒)의 문제는 한센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한센병의 낙인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잘 보여준다. '아직' 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미감아는 항상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아직'이라는 수식어는 미감아들을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강요받고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족과의 분리는 끊임없이 다시 결합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킨다. 박영준의 「소록도」에 등장하는 영기에게 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부모와의 분리이다. '병의 소굴인 수용소'의 감염 위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가의 결합이고 가족의 결합을 통한 안정감의 획득이다. 즉,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불안 의식은 가족의 결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30) 박영준, 「소록도」, 『현대문학』 80, 1961, pp. 14-15.

2) 환자 자신의 유랑 선택

> 한쪽 눈꺼풀이 조금 내려앉았고 뺨과 입이 왼편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칩거해버렸다. 헛간 뒤에 붙은 골방에서였다. 어머니는 밥그릇과 요강을 따로 준비했고 끼니 때마다 봉창에서 기척을 알렸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침침한 골방에도 낮과 밤이 쉼 없이 갈마들었고 계절이 바뀌어 갔다. 처음은 자신보다 더 절망하던 가족들도 어느 틈엔가 체념을 드러냈고, 그는 그 서늘한 한기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서 서서히 이탈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한동안은 그것이 너무 야속했지만 칩거 생활 2백여 일이 지나자 문득 깨달아졌다.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에 있다.…그러나 어떻게? 토굴 같은 이런 방구석에서야 찾아볼 게 암흑뿐이지. 그래, 집을 나가야 한다.[31]

병색이 나타나자 병자는 곧 '칩거'에 들어갔다. 그전까지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었던 한 인간이 병이 드러난 시점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골방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지켰지만 해결책 없는 한센병임을 알기에 결국 가족들도 체념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바깥과 접촉이 금지된 채 침묵의 시간을 보낸다. 그 공간에서 한센인 환자는 결국 혼자가 되어 침묵을 응축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단지 육체가 멈춰있는 공간일 뿐이다.[32] 한센인들에게 유랑은 이런 단절로부터의 시작이다.

> 부모님전상서
> 부모님모르게 집을 떠나가는 불효녀식의 죄를 용서하여주십시오.

---

31) 윤정모, 앞의 책, 1983, p. 18.

32) 오현석, 「유토피아, 충돌의 공간-한센인 집단 거주 용호농장에 대하여」, 『유토피아라는 물음』, 해석과판단 7, 산지니, 2013, pp. 45-46.

오빠와 여러 동기간이 많사오니 불효녀식을 잊어주십시오. 전생에 무슨 죄로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태어났다 생각하시고, 원수를 생각지마러주십시오. 불효녀식은 후새에 가서나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불러보고 효성을 다해볼가 하옵이나다.

금실상서

금실은 이런 의미의 편지를 써 놓고 어느 날 새벽 집을 떠나버렸다.[33]

한센인들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큰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본인이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자기에 대한 체념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낸다. 가족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유랑의 길에 나서는 것이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한센인 등장인물들은 죽음을 고민하다가도 유랑을 선택한다. 그것은 생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유랑이 자신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자기 희생의지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낙인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와의 단절을 도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센인들의 유랑의식은 자기낙인과 회피의 결과이다. 병든 신체를 확대시켜 자기 스스로를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존재로 치환시켜버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정해버리는 방식은 한센인 서사문학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다. 그리고 격리와 집단 수용 등의 문제가 그들의 정착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다. 즉, 유랑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자기 부정의 결과로 도출되는 한센인들이 현실 문제를 탈피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유랑을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도 알고 있다. 윤지영의 시에서처럼 그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

33) 심숭, 「애생금」, 『신천지』 1권 5호, 서울신문사, 1946, p. 194.

4. 나가며

지금까지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소멸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확인했다. 이미 한센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를 넘어서 망각된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려하지 않고 그런 단절을 통해서 망각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반인들은 오히려 안도하고 있다. 사회적 공포의 형성은 잔인한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의 분리를 대중들이 요구하게 하여 이를 통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회 안정을 빌미로 권력 획득과 유지를 꾀하려 한다. 하지만 이처럼 한센인의 분리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한센인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키고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 불안 의식은 사회적 낙인과 권력의 편리성 추구에 따른 것이다.

일반인들은 그들이 한센인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에 사회적 차원의 질병예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망각된 존재로서의 한센인은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투명인간의 삶을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에 편입되지도 못하고 자기 존재를 스스로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착 부재의 불안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러한 불안의식은 한센인들의 자기표현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자신의 존재를 굳이 사회로 드러내어서 타인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시선을 또다시 받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이다. 그래서 사회로의 복귀나 접근은 사회적으로, 그들 스스로도 벽을 만들어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즉, 사회와 그들의 공간은 소록도의 면회소와 같이 투명한 철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센인의 분리와 정착 불안 의식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적으

로 억압받고 낙인찍힌 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퇴출당함으로써 정착의 꿈은 멀어져갔다. 또한 이런 세계와의 단절은 한센인의 자아인식에도 영향을 줘서 사회적 낙인을 자기 낙인으로 치환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한센인 스스로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유랑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랑 의식의 이면에는 한센인들이 끝까지 품고 있는 정착에 대한 욕망이 반대로 표출된 결과이다.

근대 이후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구조는 대부분 소멸해갔지만 유독 한센인에 대한 강제적 억압과 조치들은 개선이 더디게 되었다. 지금 현재는 법적, 사회적으로 억압적 구조가 많이 소멸했지만 수많은 한센인들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요양소나 정착마을에서 부유(浮遊)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도 한센인들에게는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간에서의 삶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착마을과 요양소에 대해서 고향과 가족을 대신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 속에 진정한 정착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문학작품에는 정착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문학작품과 자전적 수기 등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현재의 삶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다른 이들처럼 즉각적인 대응이나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인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 아니다. 침묵의 응축은 묵시적 외침인 것이다.

지금 현재 사회로부터 망각된 존재가 되어버린 한센인들은 주변인에서 망각으로 나아가는 소수자의 소멸화를 거치고 있는 중

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한 그들에게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은 사회 내부로의 진입과 정착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망각을 기억으로 일깨워야한다. 한센인 문학은 한센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고 한센인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목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양한 연구가 그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윤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영준,「소록도」,『현대문학』80호, 1961, pp. 12-35.
무명생,「혈루록」,『신동아』3권 제11호-4권 제7호, 신동아사, 1933-1934.
심숭,「애생금」,『신천지』1권 5호-2권 4호, 서울신문사, 1946-1947.
윤정모,『섬』, 한마당, 1983.
윤지영,『祝福』, 인간사, 1959.
신문 자료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2. 논문

김경호,「사회생태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센병 스티그마(stigma)의 감소 전략」, 한국사회조사연구소,『사회연구』20, 2010, pp. 63-100.
김미옥,「여성한센인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사회복지연구』44-1, 2013, pp. 239-266.
김미정,「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 1930-40년대 소록도갱생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지방사와 지방문화』15-1, 2012, pp. 429-466.
김성리,「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대한의사학회,『의사학』22-2, 2013, pp. 389-419.

김정란, 「일제강점기 부산의 「나병」과 그 대응」, 한국해양대 석사 논문, 2006.
김지혜,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기」, 조선대 석사 논문, 2004.
김학균,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한센병의 은유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pp. 405-430.
박민규, 「'한하운 사건' 이후의 한하운과 시세계의 변모 양상」,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47, 2015, pp. 249-280,
박종철, 「사회적 소수자로서 한센병력인의 주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 박사 논문, 2010.
이준상, 「한센병력인의 낙인감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15-3, 2011, pp. 107-130.
정근식,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 일제하 나(癩)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51, 1997, pp. 211-265.
_____, 「한국에서의 근대적 癩 구료의 형성」,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사회과학』 1, 1997, pp. 1-30.
_____, 「질병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구조 - 익산농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 9, 1998, pp. 157-191.
_____,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 - 심숭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23, 2004, pp. 325-353.
최명표, 「[童話]_社會的_他者와의_對話_方式」, 『아동문학평론』 30, 아동문학평론사, 2005, pp. 135-151.
_____, 「한하운 시의 정치시학적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26, 2005, pp. 345-366.
최수연, 「한센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 논문, 2007.
최정기, 「일제하 조선의 나(癩)환자 통제에 대한 일연구 - 나환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 논문, 1994.
한순미, 「'서러움' 의 정치적 무의식-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自傳)」,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94, 2012, pp. 297-332.
_____, 「상처는 왜 쓰는가-한국 나환자 심숭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34, 2012, pp. 471-498.

3. 단행본

질병관리본부, 『2014한센사업지침』,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014.
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 현황」,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015.
질병관리본부, 『2013년 질병관리백서』, 질병관리본부, 2014.
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17, 행정자치부 정보통계담당관실, 2015.
오현석, 「유토피아, 충돌의 공간-한센인 집단 거주 용호농장에 대하여」, 『유토피아라는 물음』, 해석과판단 7집, 산지니, 2013.
조갑상 · 황국명 · 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작가마을, 2008.
미셸 푸코 지음, 김상운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Lefebvre, Henri,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1974.
한센인총연합회, http://www.hansenkorea.org/

(**투고일**: 2017. 3. 5 **심사완료일**: 2017. 4. 6 **게재확정일**: 2017. 4. 10)

이름: 오현석
소속: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전자우편: ohssek@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Consciousness of Anxiety about the Wandering and Settlement of Patients with Hansen's Disease

Oh, Hyoun-Suk

For a long time, Hansen's patients have been the other who had to be subject to be excluded, oppressed and even isolated from the society. Even without the human rights as social members, the patients' freedom to stay was taken away. In the end, their only option was to roan around as wanderers, or to join the shelter. However they had to physically and mentally floated around the world until the end because they could only rest their body in the shelter without being able to find the peace in mind.

Hansen's patients' consciousness of settlement anxiety firstly rests on the fear. The patients were not only deprived of freedom to stay, but also the freedom to get married,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With the weapon called law, the state has justified such an enforcement and violation. As they leave their hometowns, they experience residential anxiety in which the original space could never be filled up to satisfaction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 patients constantly crave the substitutes despite the separating from family and hometown.

Hansen's disease literature played a role in revealing these problems to the outside worl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Hansen's patients as social others, a voice for them was necessary. The role was taken by the Hansen's disease literature.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Hansen's patients' consciousness of wandering and settlement, also constantly appear through their literatures as well.

Key words: Hansen's disease, Hansen's disease Literature, Shim Soong, Kim Jeong-han, Han Ha-un, Social Other